

민주당 2연속 압승...견고한 '여소야대' 지속

1987년 이후 압도적인 격차 여당 패배는 처음 이재명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 해결 앞장" 한동훈 "깊이 반성, 패배 책임 오히려 저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두면서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에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과 관련,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여야 선거 지도부는 11일 각기 다른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175석이란 압승을 거둔 4·10 총선 결과와 관련,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여야 정치 모두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합쳐 모아 야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선 "당의 승리가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김부겸 삼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

화 정치 복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방향의 해결 방

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은 오히려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원톱'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김진수 기자

전국 득표율 상위 4명 모두 광주·전남

박지원 92.35% 1위...문금주·주철현·정진욱 뒤이어

제22대 총선 전국 최상위 득표자 4명이 모두 광주·전남에서 나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해남·완도·진도)는 92.3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81세로 현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 기록을 세우기도 한 박 당선자는 국민

의힘 광복군 후보를 7만1천843표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인 목포에서 민생당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 고향 진도가 포함된 해남·완도·진도로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과 경선을 거쳐 결국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박선경 기자

전국 득표율 2위는 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자로 90.69% 득표율을 얻어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를 가뭄히 따돌렸다.

3위는 88.89%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여수갑)다.

4위는 민주당 정진욱 당선자(광주 동남갑)로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88.89%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광주·전남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단 한 석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박선경 기자

국힘, '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할까

'尹 책임론' 분출 속 '위기 수습' 책임자로 계파색 열린 중진들 거론
김태호·권영세·윤상현·주호영도...친윤계 입지 급격히 좁아질 듯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회 권력을 범야권에 송두리째 넘겨준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총선 100여일 전 여당의 키를 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색이 열린 중진들이 전면에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데다 당이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 이반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참패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친윤(친윤석열)계와 각을 세운 경쟁이 있는 중량급 인사가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할 전망이다.

우선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과 4선에 성공한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된다.

나 전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데다 20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원내 대표를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만큼 참패 충격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역시 당내 비주류 중진으로서 3·8 전당대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비토 공세에 시달리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나 전 의원과 안 의원 모두 '정권 심판론' 바람이 거센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구를 기반으로 생활에 성공했기에 향후 당내 보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였던 경남

양산에서 힘겹게 승리를 거머쥔 김태호 의원 역시 4선 중진이 된 데다,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아 당내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역시 격전지였던 서울 용산에서 5선에 성공하면서 당내 입지가 커질 수 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며 대구·경북(TK) 맹주로 자리 잡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나,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역설하며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역시 5선의 무계감을 쌓은 터라 당내에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반대로 2년간 당의 주류로 활동해온 친윤계는 참패 이후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총선 참패의 원인을 친윤계에게 묻는 여론이 당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분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심상정 "진보정치 소임 내려놓는다"...정계 은퇴 선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

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한 심 의원은 회견 후 "정계 은퇴" 선언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답했지만, 당 관계자는 심 의원의 회

견에 대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경기 고양갑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했으나 18.41% 득표로 3위에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며 창당 12년 만에 원의 정당으로 전락했다. /김진수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